



전협전남도회, 중대재해 근절 대책회의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가 4일 박경재 회장 주재로 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 윤리위원 및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경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회는 “건설현장의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근로자의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동부소방서, 조선대병원 소방안전교육

광주 동부소방서가 최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소방안전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4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교육은 병원 내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병원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수술실의 전기 화재 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례를 예로 들며 병원 화재 상황에서 자위소방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전남문화재단-지역 예술대학 협약 체결

전남문화재단이 전남·광주 지역 6개 예술대학과 ‘지역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재단은 △국립목포대학교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학장 김경희) △국립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스쿨(학장 조래철) △동신대학교 사회문화대학(학장 오성록) △전남대학교 예술대학(학장 하진) △전남도립대학교 공연음악과(학과장 서담) △조선대학교 미술대학(학장 문정민) 등 전남·광주권 6개 주요 예술대학과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재단은 △창년 및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문화예술 분야 진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기타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선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예술대학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 예비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전남도의회-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협력 ‘맞손’

도의회 10년만 공식 방문 교류
무안~함저우 노선재개 등 공감

전남도의회가 4일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은 지난 2015년 5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의 전남도의회 방문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 공식 교류로,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두강(杜康)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도의회를 찾았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성급 입법·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저장성 주요 입법과 정책감독을 담당하며, 지방 외교 및 국제교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단순한 의례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의회가 정기적 상호 방문을 통해 정책과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전남도의회는 4일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마련하기 위한 ‘교류의향서(LOI)’ 체결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말 정기노선으로 운항이 시작됐지만, 여객기 참사로 중단된 무안~함저우 국제공항 노선 재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저장성 대표단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노선 재개 시 항공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항공 수요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회담에서 “저장성과 전라남도는 농업·수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도 높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며 “저장성 소재 글로벌 기업과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산물, 이차전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협력 방안 도출에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두강 부주임은 “양 지역은 산업적

구조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며 “입법과 정책 분야의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양국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저장성과 장시성, 푸젠성, 산시성, 광둥성 등 5개 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정근산 기자

송창영 광주대 교수, 서울경찰청 초청 재난안전 특강

송창영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경찰청 초청을 받아 ‘경찰과 재난-위험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재난안전 특강을 진행했다.

4일 광주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기후 위기, 복합재난, 사회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경찰조직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교수는 강연에서 도시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찰이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안전사고,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짚으며 경찰의 선제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에 규정된 경찰의 법적 책무를 소개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는 단순한 훈

련이 아닌 제도·문화·리더십의 총체적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환중 기자



광주경총, 신입직원 아침식사·문화행사 지원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광주 북구청과 함께 추진 중인 ‘내일이 행복한 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한달간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아침 식사 및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참여기업 소속 신입직원의 조기 이직 방지와 유연하고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아침식사(8개사) 또는 문화행사(2개사)를 진행했다.

아침 식사는 커피차를 활용해 직접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운영했으며, 최근 입사한 신입직원과 전 직원에게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제공해 조직 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오이솔루션의 인사담당자는 “신입직

원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커피차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아침식사(커피차) 지원 이외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영화관람 문화행사도 지원했다.

정평시스템㈜의 한 담당자는 “바쁜 업무 탓에 신입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마땅한 계기가 부족해 아쉬웠는데 이번 영화관람 행사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직원들의 실질적인 조직 적응과 장기근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업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장애인체육회, 민생회복 자체 쿠폰 지급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자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지급 행사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임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침수 피해 등 잇따른 재난으로 위축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광주시의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현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소정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비쿠폰 재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국제거래가 운영한 2025년 미래내일일경협사업(인턴형) 1기를 통해 마련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턴 3명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기업지원금(1인 월 20만 원)과 멘토수당(1인 월 15만 원)을 활용해 임직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광주은행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지급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광주시가 지정한 소비촉진 쿠폰 사용처인 금호타이어 인근(선운·송정동), 전평제상인회(매월동), 늘솔길상인회(농성동)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자체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조그마한 보탬이 돼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광주시의 정책들에 적극 동참해 시 산하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